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전남 진도군 참사 해역에서 선상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1주기… 어제 선상추모식 엄수 “엄마는 네 얼굴 잊을까 봐 무섭구나”

“엄마는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네 얼굴을 잊을까 봐 무섭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선상추모식이 엄수됐다.

목포해경 합정이 무겁게 뱃고동을 울리면서 선상추모식이 시작되자 27명의 유가족이 하나둘 자리를 메웠다. 사고 지점을 알리는 노란 부표는 어김없이 돌아온 가족들에게 큰 인사를 건네는 듯 바닷바람에 넘실거리고 있었다.

참사 해역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배에 거치된 빗꽃 조형물에 “보고 싶다”, “그리운 나의 똥강아지” 등을 적은 노란 리본을 달면서 그리운 이름을 써 내려갔다.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듯 단원과

희생자가 한 명씩 호명되자 11년의 세월에도 지우지 못한 유가족들의 슬픔과 눈물이 터져 나왔다.

월 새 없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동안 유가족들은 목 놓아 우는 대신 입술을 꼭 깨물거나 두 손을 꼭 모으며 애통함을 달랬다.

이들은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 아들·딸의 이름을 여러 차례 외쳤다. 한 유족은 이름을 부르다 오열하며 “이제는 얼굴조차 까먹겠다. 사진을 보면 알겠는데 어쨌든 얼굴이 생각나질 않는 거야”라며 11년의 세월을 탓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단원과 교정에서 가져온 빗꽃을 국화와 함께 바다에 던지며 유가족들은 눈물로 희생자들에게 11번째 봄을 전했다. 연합뉴스

제주, 국내 첫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청

도, 신산업활성화형 신청… 이르면 5월 말 결정 예상 재생에너지 변동성 해소·안정적 에너지 공급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정대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가운데 결실을 거둘지 주목된다. 3가지 분산특구 유형 중에서 ‘신산업활성화형’ 분야에 신청서를 낸 제주도는 “에너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단위의 혁신적인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제주도가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분산특구 운영을 통해 도내 분산된 에너지 자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플랫폼에 기반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차량-전력망 연계(V2G), 수요 혁신 등 3개의 핵심 사업 모델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2022년 4월 산업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관련 전문가, 사업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왔다. 또한 한국전력, 한전KDN, 제주 지역 14개 국가 공공기관과 잇따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갖췄다. 지난 2월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제주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출범시켰다.

제주도는 5월 13일까지 분산특구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분산특구 지정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분산특구로 지정될 경우 오는 2032년까지 29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치, 19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양재운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분산특구는 제주도정에서 2022년부터 장기간 준비해온 역점 계획인 만큼 제주도의 역량을 총결집해 반드시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정책 결정 등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2035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분산특구 지정을 준비해 왔다. 분산특구는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의 균형을 도모하고 규제 특례 조항을 토대로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업소 신규 모집 도, 내달 16일까지… 올해부터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희망 업소를 다음달 16일까지 신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도내 음식점,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행정시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6월 중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해 착한가격업

소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단을 통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 중 가격과 위생,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베스트 업소’ 30곳을 선정해 1곳 당 50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같은 업종의 다른 착한가격업소보다 가격을 15~20% 더 낮게 책정한 곳을 ‘최저가격업소’로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도 지원한다.

이상민기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올해도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억8000만원(양식어장 정

화사업 1억3000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과 조간대 위험지구의 수중구역, 마을어장과 낚시터 등에 방치되거나 퇴적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게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대학교병원이 전국 최초로 다제약물 안심병원을 선언했다.

제주대병원 전국 최초 ‘다제약물 안심병원’ 선언

통합시스템 임상에 도입

제주대학교병원이 EMR(전자차트) 통합형 시스템을 실제 임상에 첫 도입해 16일부터 구현하고 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지난 1월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드림헬스케어의 다제약물 관리 솔루션 ‘InDream MediSupport’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약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제주대학교병원은 전국 최초로 ‘다제약물 안심병원’을 선언하며, 의료 정보 기반의 환자 안전 확보와 진료 효율성을 높게 됐다.

의료진은 EMR 내 ‘메디차트’ 버튼 클릭만으로 ▷약물 간 상호작용 정보 ▷임신·수유 중 약물 복용 안전 등급 ▷신장 기능 저하 시 용량 조절 안내 ▷흔한 부작용 정보 ▷고령자 주의 약물 경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용 모바일 앱 ‘InDream MyChart’와 연동돼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약물 처방 오류를 예방하고 진료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규탁기자

제28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 공모주제

- 제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스토리가 있는 상품
* 제주어, 제주의 문화, 역사, 자연환경, 먹거리, 관광명소 등

□ 공모부문

- 일반 / 프리미엄 / 학생 아이디어 (3개부문)

□ 총시상금

1,650만원(총 13작품)

□ 접수기간

- 서류접수: 2025. 4. 28.(월) ~ 5. 9.(금) / 10:00 ~ 18:00
- 실물접수: 2025. 5. 28.(수) ~ 30.(금) / 10:00 ~ 18:00

*서류심사 통과작 한하여 접수

※ 학생 아이디어 부문은 서류접수로 한함

□ 문의처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 ☎ 064-710-3343
(주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064-741-8736



응모자격, 접수방법 및 입상자 특전
관련 내용은 QR 코드 및 공고문
(자세한 사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자세한 사항) 확인

- ①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u.go.kr) “입법·고시공고”
- ②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 “공지사항”
- ③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 홈페이지 (metajejuisland.or.kr) “공모전소식”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시공 / 징크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작업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상충을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사창방면 1층 삼검구이 서광로 225 2층



심의회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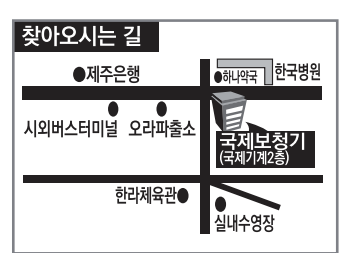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